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영역 프랑스어 I 정답 및 해설

01. ① 02. ⑤ 03. ② 04. ③ 05. ② 06. ④ 07. ⑤ 08. ③ 09. ① 10. ①
11. ③ 12. ④ 13. ④ 14. ② 15. ④ 16. ④ 17. ⑤ 18. ⑤ 19. ① 20. ⑤
21. ② 22. ③ 23. ① 24. ③ 25. ③ 26. ① 27. ② 28. ① 29. ② 30. ②

[1~5] 발음 및 어휘

1. [o] 발음 찾기

Je suis toujours à côté de toi. 나는 언제나 네 옆에 있어.

- ① haut [o] ② neuf [[nœf] ③ oncle [ɔ̃kl] ④ rouge [ʁuʒ]
⑤ oiseau [wazo]

정답해설 : côté의 밑줄 친 부분 ‘ô’는 [o]로 발음된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①번이다. 정답 ①

2. 철자를 조합하여 낱말 찾기

Rien ne <u>s</u> emble changer.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겠지.
Mais un matin tu te réveilles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면
et le <u>m</u> onde est différent.	세상은 달라져 있어.

- ① 푸른색 ② 5 ③ 사람들 ④ 우유 ⑤ 느린

정답해설 : □ 안에 들어갈 철자는 각각 ‘e, l, n, t’로, 이것을 조합하면 ‘lent(느린)’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3. 어휘_동사

- 방은 큰길 쪽으로 향해 있다.
○ 이 요리는 나에게 식욕을 불러일으켜.

- ① 말하다 ② ~향해 있다/(식욕 따위) 불러일으키다 ③ 남아있다
④ 차지하다 ⑤ 발견하다

정답해설 : 첫 번째 문장의 빈칸에는 문장의 의미상 전치사 ‘sur’와 결합하여 ‘~쪽으로 향해 있다.’를 의미하는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답지의 동사들 중에서 ‘donner’는 ‘donner sur’ 형태로 (주어가) ~ 방향으로 나 있다. 향해 있다’를 의미한다. 두 번째 문장의 빈칸에는 명사 ‘appétit’(식욕)와 결합하여 ‘식욕을 북돋아준다’를 의미하는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답지의 동사들 중에서 ‘donner’는 ‘donner de l’appétit’ 형태

로 ‘식욕을 불러일으키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동사는 답지 ②번의 ‘donner’이다. **정답 ②**

4. 어휘_형용사

A : 나는 너무 많이 먹었어. 속이 거북해.
B : 나도 그래. 우리 산책할까?
A : 아니, 날씨가 눅눅해. 게다가 비가 올 거야.

- ① 충분히 ② 짧은 ③ 거북한/눅눅한 ④ 빠른 ⑤ 식도락의

정답해설 : 대화 맥락상 첫 번째 A의 빈칸에는 ‘se sentir’와 결합하여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거북하다’는 의미가 되는 형용사를 찾아야 한다. 답지에 제시된 형용사들 중에서 ‘lourd’는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거북한, 묵직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두 번째 A의 빈칸에는 날씨를 표현하는 명사 ‘le temps’과 결합하여 ‘(비가 올 것 같이 날씨가) 눅눅한’의 의미를 만드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한다. 프랑스어에서 ‘le temps est lourd.’는 ‘날이 눅눅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형용사는 ③번 ‘lourd’이다. **정답 ③**

5. 어휘_명사

선생님 : 4 곱하기 3은 얼마인가요?
학생 : 쉬워요. 12입니다.
선생님 : 아주 잘했어요.

- ① 1/2 ② 곱하기 ③ ~같은 ④ 1/4 ⑤ 다음

정답해설 : 선생님의 첫 번째 질문에서 숫자 4와 3이 나오고 이어지는 학생의 대화에서 학생이 ‘12’라고 답하는 것으로 보아 선생님의 첫 번째 빈칸에는 두 숫자 4와 3을 연산하여 12가 되는, 즉 ‘곱하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답지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곱하기’의 의미로 사용되는 명사는 답지 ②번의 ‘fois’이다. **정답 ②**

[6~21] 의사소통 기능

6.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문을 닫아 줄래?
B : ①, ②, ③, ⑤ ____.
A : 고마워. 친절하구나.

- ① 알겠어 ② 그래 ③ 물론이지
④ 그때 ⑤ 네가 원하는 대로

정답해설 : 대화에서 빈칸 B에 이어 A가 고맙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문을 닫아 달라는 A의 요청을 B가 수락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답지 ④번은 과거의 어느 때를 의미하는 말로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7. 글의 내용 이해하기

내 친구 Élise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프랑스인 대학생입니다. 그녀는 초록색 눈을 가졌고 키가 큼니다. 그녀는 상냥합니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녀는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그녀는 Lille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 ① 그녀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② 그녀는 어떤가요?
- ③ 그녀의 국적은 어디인가요? ④ 그녀는 형제가 몇 명인가요?
- ⑤ 그녀의 남동생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정답해설 : 글에서 Élise 남동생의 직업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⑤번이다.

정답 ⑤

8. 대화 내용 이해하기

(식당에서)

A : 안녕하세요, 선생님!

b. 예약하셨어요 ?

B : 네.

A : a. 누구 이름으로 하셨죠?

B : Jean Dubois 입니다.

A : 저를 따라오세요. 2층입니다.

B : c. 정원에 있는 자리는 안 되나요?

A :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어요.

B : 알겠습니다.

<보 기>

- a. 누구 이름으로 하셨죠
- b. 예약하셨어요
- c. 정원에 있는 자리는 안 되나요?

정답해설 : 대화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칸에 들어갈 말의 순서가 b-a-c가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9.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너의 그림 수업 언제 시작하니?

B : 10월 5일이야.

A : 5일이 무슨 요일이니?

B : 수요일이야.

- ① 무슨 요일이야 ② 몇 시에 ③ 며칠이야
④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야 ⑤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

정답해설 : 빈칸 A의 질문에 대해 B가 수요일이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요일을 묻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10.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나는 닭고기가 먹고 싶어. 너는?

B : a, b . 나는 생선을 먹는 것이 더 좋아.

<보 기>

- a. 난 아니야 b. 난 아니야
c. 내 것이 아니야 d. 나도 아니야

정답해설 : A가 먹고 싶은 것과 B가 먹고 싶은 것이 다르므로 빈칸에는 A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 a와 b가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11. 대화 내용 이해하기

(콘서트가 끝나고)

A : 너 저 가수랑 얘기했니?

B : 응, 친구야.

A : 어떻게 그럴 수가! 너는 그를 어떻게 아니?

B :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 ① 그것은 누구 것이니? ② 그것은 분실한 것이니? ③ 어떻게 그럴 수가!
④ 그것은 비싸구나! ⑤ 그것은 뭘에 쓰는 거니?

정답해설 : 대화에서 A는 B가 가수와 친구 사이라는 것에 놀라 빈칸으로 답하면서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묻고 있다. 따라서 A의 빈칸에는 믿기 힘든 상황에서 놀라움을 표현할 수 있는 ③번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 ③

12. 기사문 내용 이해하기

입주민 여러분께
22시 이후에는 소란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답해설 : 게시문은 건물 입주민들에게 22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④번이다. **정답 ④**

13.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나는 Antoine에게 선물을 뭐 할지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어. 그의 생일이거든.
B : 그의 취향은 뭐니?
A : 스포츠와 음악이야.

- ① 그것은 그의 마음에 드니 ② 그는 몇 살이니 ③ 그는 무엇을 지나가니
④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 ⑤ 그것은 몇 년도지

정답해설 : 밑줄 친 부분은 상대의 취향을 묻는 표현이므로 해당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적합한 것은 ④번이다. **정답 ④**

14. 안내문의 내용 이해하기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직진해서 우측 두 번째 길로 가세요. 그런 후 좌측 세 번째 길로 가세요. 그것은 당신의 좌측에 있습니다.

정답해설 : 길 찾기 앱이 안내하는 방향대로 제시된 약도에서 따라가면 병원의 위치는 (b)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5.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파티가 굉장했어요. 저를 초대해줘서 감사했습니다.
B : 천만에요. 즐거웠어요.
A : 또 봐요.
B : 또 봐요, 잘 들어가세요.

- ① 모르겠어요 ② 별로요 ③ 그것은 불가능해요
④ 천만에요 ⑤ 걱정하지 마세요

정답해설 : 빈칸 B에는 A의 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이면서 이어지는 B의 즐거웠다는 표현과 어울리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16.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실례합니다. 이 의자 사용하는 건가요?

B : 아니요, 비어 있어요.

A : 제가 이것을 가져가도 될까요?

B : 물론이죠. 가져가세요.

- 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② 누군가 있나요 ③ 몇 시예요
④ 제가 그것을 가져가도 될까요 ⑤ 누구세요 (전화상에서)

정답해설 : 대화에서 A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B가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두 번째 B가 의자를 가져가도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 A의 빈칸에는 의자 사용에 대해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17.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공원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B : 마침 잘됐다. 나도 한 바퀴 돌려고 했거든.

A : 좋아! 가자.

- ① 유감이야 ② 그것은 금지되어 있어 ③ 나는 할 수 없어
④ 뭐 이런 것까지 ⑤ 마침 잘됐다

정답해설 : A가 공원에 가자고 제안하자 B도 마침 자신도 한 바퀴 돌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B의 빈칸에는 A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8.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안녕하세요, 시골 빵 2개 주세요.

B : 네, 부인. 더 필요하신 것은요?

A : 없어요. 그것만 주세요.

- ① 모두 합해서요 ② 아무것도 ③ 당신이세요
④ 그것은 준비됐나요 ⑤ 더 필요하신 것은요

정답해설 : 빈칸 B의 질문에 A가 그것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주문한 물건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A에게 물어보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9.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약 35도야.

- 정답해설** : 날씨에 관해 대화하는 상황에서 빈칸 B의 질문에 A가 온도를 대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기온을 묻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B : 아니, 괜챦을 거야.

정답해설 : B가 발이 조금 아프다고 하는 것에 대해 A가 빈칸으로 질문하고 이에 대해 B가 아니, 괜찮아질 거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A의 빈칸에는 상태가 심각한 것은 아닌지를 묻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A : 유감이네.

정답해설 : 대화는 A가 B를 콘서트에 초대했으나 B가 선약이 있다고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B의 빈칸에는 A의 초대에 대한 대답임과 동시에 이어지는 문장인 ‘그런데 선약이 있어’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2. 지리 문화: Cannes

- 이것은 프랑스 남부의 도시이다.
- 이 도시는 지중해에 면해 있다.
- 이 도시는 국제영화제로 아주 유명하다.

- ① 리옹(Lyon) ② 디종(Dijon) ③ 칸(Cannes)
④ 보르도(Bordeaux) ⑤ 앙굴렘(Angoulême)

정답해설 : 제시문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프랑스 남부의 휴양 도시로, 매년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이 어디인지를 묻고 있다. 해당 도시는 칸(Cannes)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3. 언어문화: jeter l'argent par les fenêtres

진: 피에르가 휴대폰을 또 바꿨어.
레아: 또? 그는 돈을 낭비하는구나(직역: 그는 돈을 창밖으로 던지는구나).
진: 그게 무슨 말이야?
레아: 그는 돈을 너무 많이 써.
진: 재밌네. 한국어에서는 돈을 물 쓰듯이 쓴다고 말하거든.

정답해설 : 대화문은 '돈을 낭비하다'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표현인 'jeter l'argent par les fenêtres'에 관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답지 ①번이다. 정답 ①

24. 사회 문화: Cours Saleya(살레야 광장)

살레야 광장은 니스에서 중요한 장소이다. 그곳은 오전 6시부터 밤늦게까지 늘 활기가 넘친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과일, 채소, 특히 꽃을 파는 시장이 열린다. 반면에, 월요일은 골동품 상인의 날이어서 희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살레야 광장은 니스에 있다
② 일요일에는 거기에 채소들이 있다.
③ 살레야 광장에는 오로지 꽃만 있다.
④ 거기에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과일을 판다.
⑤ 매주 월요일에 거기에서는 희귀한 것들을 살 수 있다.

정답해설 : 제시문은 니스에서 유명한 살레야 광장에 관한 것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답지는 ③번이다. 정답 ③

25. 건축: Grande Arche(신 개선문)

A: 저 건물은 뭐야?

B: 파리 서쪽 “라 데팡스” 구역에 있는 Grande Arche(신 개선문)이야.

A: 사무실 건물이니?

B: 응, 대부분이 사무실이야.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7월 14일에 준공식을 했어.

A: 옥상에 올라갈 수 있어?

B: 응. 거기에는 파리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좋은 식당이 있어.

정답해설 : 대화문은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여 파리의 “라 데팡스” 구역에 세워진 Grande Arche(신 개선문)에 관한 것으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답지를 <보기>에서 고르면, 정답은 [b. 1989년 7월 14일에 준공식을 했다. c. 대부분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이다.]로 구성된 ③번이다. **정답 ③**

26. 인물 문화: 모리스 르블랑

모리스 르블랑은 1864년 루앙에서 태어났다. 그는 기자였다. 어느 날 *Je sais tout* (쥬 쎄 투) 잡지사의 부장이 그에게 셜록 홈즈와 같은 추리 소설의 주인공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모리스 르블랑은 아르센 뤼팽을 창조해냈다. 오늘날 모리스 르블랑의 주인공은 영화와 연극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보 기>

- a. 모리스 르블랑은 루앙 출신이다.
- b. 오늘날 아르센 뤼팽은 영화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 c. 아르센 뤼팽은 *Je sais tout*(쥬 쎄 투) 잡지사의 기자였다.
- d. 모리스 르블랑은 영화와 연극에서 아르센 뤼팽을 연기했다.

정답해설 : 제시문은 아르센 뤼팽을 만들어낸 프랑스 작가 모리스 르블랑에 관한 내용으로, 제시문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b’로 구성된 ①번이다. **정답 ①**

[27~30] 문법

27. 중성대명사 ‘en’

A: 부장님이 직장을 그만두실까?

B: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말해. 그런데 나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정답해설 : 대화 맥락상 B의 빈칸에는 동사 ‘parler’와 결합하여 ‘사람들이 그것(부장

님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말해.’의 의미를 표현하는 대명사가 들어가야 한다. 동사 ‘parler’는 전치사 ‘de’와 결합하는 ‘parler de...’의 형태로 ‘...에 대해 말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B의 빈칸에 들어갈 대명사가 사용되기 이전의 문장을 고려해보면, “On parle de ce que la directrice va quitter son poste.”의 형태가 된다. 결국 ‘de qqch’를 대신하는 대명사는 중성대명사 ‘en’이므로 B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답지 ②번이다.

정답 ②

28. 간접의문문

왼쪽 남성: 너 마르크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니?
오른쪽 여성: 응, 그는 와. 나에게 그것을 약속했어.

- ① ~인지 아닌지 ② 어디서부터 ③ 언제
④ 어떻게 ⑤ 무엇을 가지고

정답해설 : 해당 문항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의문문으로 만들 때 이를 도입하는 의문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프랑스어에서 ‘Oui’나 ‘Non’으로 답하게 되어 있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의문문으로 만들 때 이를 도입하는 의문사는 ‘Si’이다. 해당 문항에서 왼쪽 남성의 질문에 대해 오른쪽 여성이 “응, 그는 와.(Oui, il vient.)”라고 ‘Oui’로 답한 것으로 보아 왼쪽 남성의 대사 빈칸에는 “~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도입하는 의문사 ‘si’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29. 부정사 tout

A: 나는 친구들과 (a)매일 저녁 한국어를 배워.
B: 너무 어렵지 않니?
A: 조금 어려워, 그렇지만 우리 (b)모두 아주 만족해 하고 있어.

정답해설 : 해당 문항은 부정사(indéfini) ‘tout’의 용법을 묻고 있다. 빈칸 (a)에는 ‘모든, 매번’으로 해석되는 부정형용사 ‘tout’의 올바른 형태가 들어가야 한다. 부정형용사로 쓰인 ‘tout’는 말 그대로 형용사이므로 ‘tout+정관사+명사’의 형태로, 뒤에 나오는 명사의 성·수에 일치시켜야 한다. 빈칸 (a) 이후에 이어지는 명사가 남성 복수(les soirs)이므로 빈칸 (a)에 들어갈 ‘tout’의 올바른 형태는 남성 복수형인 ‘tous’가 알맞다. 또한 빈칸 (b)에는 문장 전체의 주어인 ‘nous’를 대신하는 ‘모두, 모두들’로 해석되는 ‘tout’의 대명사 형태가 들어가야 한다. A의 두 번째 말의 마지막 형용사가 여성 복수형인 ‘contentes’(만족한)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주어 ‘nous’는 여성 복수임을 알 수 있다. 결국 (b)의 빈칸에는 대명사로 쓰인 ‘tout’의 여성 복수형인 ‘toutes’가 알맞다. 따라서 (a)와 (b)의 빈칸에 들어갈 ‘tout’의 올바른 형태는 각각 (a) tous, (b) toutes이므로 답지 ②번이 정답이다.

정답 ②

30. 전치사

- ① 그들은 떠나기로 결정했다.
- ② 그는 나에게 성공을 기원했다.
- ③ 나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 ④ 그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 ⑤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서둘렀다.

정답해설 :

해당 문항은 전치사의 올바른 용법을 묻고 있다. 답지의 정·오답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답지 ①의 동사 ‘décider’는 동사 원형을 보어로 취할 경우에 전치사 ‘de’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다. 따라서 전치사의 쓰임이 알맞다. 답지 ②의 동사 ‘souhaiter’는 ‘souhaiter à qqn de inf’ 형태로 ‘~에게 ~하기를 바라다’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해당 문장에서는 동사원형을 도입하는 전치사로 ‘de’가 아니라 ‘pour’가 사용되었으므로 전치사의 쓰임이 알맞지 않다. 답지 ③의 동사 ‘tenir’는 ‘tenir à 동사원형’ 형태로 ‘~을 바라다’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전치사의 쓰임이 알맞다. 답지 ④의 밑줄 친 전치사 ‘de’는 구문상 진주어인 ‘chanter avec lui’(그와 함께 노래 부르는 것)를 도입하는 전치사이다. 따라서 전치사의 쓰임이 알맞다. 답지 ⑤의 동사 ‘se dépêcher’(서두르다)는 동사원형을 보어로 취할 때 흔히 전치사 ‘de’와 결합하는 동사이다(예: Dépêche-toi de finir tes devoirs! 서둘러서 너의 숙제를 끝마쳐라). 하지만 해당 문장에서와 같이 ‘pour ne pas manquer le bus’(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se dépêcher’ 동사의 목적보어가 아니라 ‘목적’을 의미하는 상황보어(complément circonstanciel)이다. 따라서 ‘목적’을 도입하는 전치사 ‘pour’가 사용된 것은 알맞다. 따라서 전치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②번이다.

정답 ②